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3주일, 순교자 성월
제36권 40호(다해) 2016년 9월4일

[목사]



< 9월, 순교자 성월 >

버림

버리지 않고 그 무엇에 매여 있으면,
새가 날개를 잃고 날 수 없듯이
주님을 자유롭게 따를 수가 없다.

금전, 재산, 사업 등..., 물질에 대한 애착과
심지어 부모와 처자, 형제까지 버림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애착까지도 완전히 끊어 버려야 한다.
자신을 버리는 것을 자아포기라 하는데
이것이 제일 어려운 포기이다.

주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우리들은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자기 나름대로 포기를 감행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도록 하자.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형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김용태 그레고리오, 박재선 베드로 & 장기환 루시아
	(생)김석기 스테파노 가정, 이만석 미카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서성용 베드로, 김차욱 요셉 & 김복님 마리아, 권복주 올리아, 오필환 마리아, 오웅학, 김옥영 & 김덕영, 엄익수 바오로, (생)박영식 안드레, 박정미 클라라, 손석 스테파노, 황윤재 베드로, 윤 미카엘 가정, 송순덕, 이세준 대건 안드레아 & 이현준 다니엘, 한제임스 베드로, 한케네스 바오로, 이용훈 안드레아, 권순길 세실리아, 엄세종 그레고리오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9,13-18

화답송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독서 필레몬서(Philemon) 9-10,12-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
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복 음 루카 (Luke)14,25-33

영성제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
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
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4. 천주교와 타 사상의 만남(1876-1945년)

4-4. 천주교와 신사 참배

그러므로 조선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 참배에 포함되어 있는
신도 의식적 요소 때문에 이를 거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
다. 따라서 조선 천주교는 1925년 「교리교수 지침서」에서 신
사 참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와 일본 총독부는 신사 참배 문제로 예리하게 대립하였다.
1932년 일본 천주교회는 일본 정부에 신사 참배가 종교 의식
인지, 국민의례인지에 관하여 정식으로 회답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신사 참배가 국민의례의 일종
임을 강조하는 답변을 보내 왔다. 이 답변을 근거로 1936년
로마 교황청은 일본 신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해도 괜찮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 교회에도 그대
로 적용되어, 조선의 주교들은 반대하던 종전의 태도를 철회
하고 일본 주재 교황대사의 훈령에 따라 신사 참배를 용인하
였다. 그러나 조선인 천주교인들에게 신사 참배는 신앙의 문
제인 동시에 ‘황도 정신’의 발양을 목적으로 한, 조선인의 민
족 감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본 교회가 신사 참배의 종교성
여부에만 관심이 있던 반면, 조선 교회는 그 종교성 여부와 함
께 민족 감정을 감안해야 하였다. 그러기에 당시 평양지목구
장이던 모리스(Morris, M.M.) 신부는 이에 반대한 결과 자신
의 선교지를 떠나야 했다. 또한 상당수의 조선인 신자들은 교
회의 이 같은 결정에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끝까지 이를 거부
하였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 근무하던 학교나 병원을
사임하는 수녀들이 잇따라 나타났으며, 학교와 성당이 폐쇄되
는 고초를 무릅쓰고 신사 참배를 완강히 거부한 성직자도 있
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몇 명의 성직자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전지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신사 참배에
대한 조선인들의 민족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단순히
종교적 측면에서만 제한해서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사 참배에
대한 천주교회의 저항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신사 참배에 대
한 천주교회의 저항은 개신교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약하였다.
물론 개신교계의 ‘주류’도 우여곡절 끝에 신사 참배를 용인하
였지만, 장로교의 일부 신자들을 비롯해서 보수 신앙을 견지
하던 개신교 일각에서는 신사 참배에 강하게 항거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순교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천주
교는 뒷날 신사 참배를 거부한 개신교 신자들에게 상당한 비
난을 받았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34	234	233
봉헌	255	255	269
성체	303	303	281
파견	345	345	345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루카14,27)

우리 교회는 매년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신앙을 전해 준 선조들, 특히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를 보냅니다. 지난 5월, 병인(1866년)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순교 형장을 중심으로 하는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교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옥에서 고문을 견디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또 어떠했을까?’ 스스로 물음을 던져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 피하고 싶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순례지 중에서 복자 황일광 시몬이 처형 당한 홍주에서는, 필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스를 다시 돌려보내며 사랑으로 받아들이 것을 부탁하는 사도 바오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스를 이제 종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고, 사도 자신을 맞아들이듯이 오네시모스를 맞아들여 달라고 당부합니다.

복자 황일광 시몬은 사람대접을 받을 수 없는 백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양반 신앙인들이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집짐승에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네시모스를 부탁한 사도 바오로도, 백정을 사람으로 대한 우리 신앙 선조들도, 이 세상의 가치와는 대조적인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하느님의 가치로 채워 넣음을 의미합니다. 지혜서는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시어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고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손길로 채워 주고 이끌어 주시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충실히 살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 마더 데레사 수녀의 시성을 기뻐합니다. 하느님의 도구로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데레사 수녀의 삶은 하느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십자가의 길을 일러 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믿기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아야겠습니다. 성인들이 살아가신 길에 우리 모두 초대받고 있습니다. ‘자비의 회년’을 지내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작은 실천을 통해 성인의 길, 예수님 제자로서의 길을 더욱 충실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신종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교육
- 일시 : 9월 10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장소 : American Martyrs Catholic Church
624 15th Street, Manhattan Beach, CA 90266
 - 모집 인원 : 각 분야 별 00 명

한국 교회는 해마다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 모으기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 일시: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3시
시작기도를 오전 11시 30분에 합니다.

- 12시 점심식사, 1시~3시 여흥시간
- 장소: Torrance Park, 2001 Santa Fe Ave, Torrance, CA 90501
Arlington Ave 와 Sepulveda Blvd. 에서 한 블록 북쪽에 위치함.
 - 대상: 레지오 마리에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 준비물: 땀세라, 목주, 공원에서 지낼수 있는 편한 복장
꾸리아에서 갈비 70 파운드와 김치 3통, 음료수등을 준비합니다.
각 브레시디움별로 참여인원수대로 필요한 만큼 밥과 반찬,
수저등을 준비합니다.
 - 연락처: 남 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음주일(11일)부터 우리본당의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개학합니다. 방학 동안 헤이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 일시 : 9월17일(토) 오전 9시30분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LA 대주교

- 9월4일 : 소공동체(토서봉사) 김밥(\$4), 컵라면(\$2)
- 9월11일 : PV2반 (카레덮밥 \$ 3)

- 일시: 9월15일(목요일) 추석,아침8시30분, 저녁 7시30분
- 미사: 합동 위령미사
- 미사 중 분향 및 짧은 연도
- 미사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 중

- 일시 : 2016년 9월11일(주일) 오전 11시
- 주례 : 오스카 솔리스주교님
- 견진 교육 : 영성피정 이수자
(6월2일~6월5일, 신앙성숙과 해신을 위한 영성피정)
- 견진신청 마감 : 8월 28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미사 시간 변경안내 : 아침미사 : 7시 30분
 낮 미사 : 10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휴강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본당의 날 행사에 각 단체별 부스를
(먹거리, 특산물, 음료 등등...) 접수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사무실에 신청하여주십시오.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310) 997-7770

교무금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김 욱 김병조 김병태 김성현 김인성 김정선 김 준 김충섭 김화경 박완철 박중열 반정이 서영주 성낙호 안민수 안태갑 오강님 오명섭 유보나 유선식 이병우 이태옥 이현주 장영진 정남형 최미열 최태훈 홍광선 송마이클	성전현금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김병조 김 준 김충섭 박완철 서영주 성낙호 안민수 안태갑 유선식 이병우 이현주 장영진 정남형 최미열 최태훈 홍광선 송마이클
	합계:\$ 3,885		합계 : \$1,835
주일미사헌금 :\$2,316		광고비 : \$240	
		감사헌금: \$500(이재용)	
		탁구 동호회기부: \$500	

남가주 소식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 평의회

- 내용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및 봉헌 갱신미사
- 일시 : 9월 8일(목) 오후 7시부터
- 장소 : 성 바실 전주교회 본당
(637 S. Kingsley Dr, L.A90005)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지도 신부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목주, 봉헌공책, 미사준비
- 문의 : 이정화 헬레나 (323)899-3202
또는 각 성당 셀 회장

◆제 17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일시 : 2016년 9월 11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주소 :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가 원하면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 \$150,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 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 연락처 : 이메일 <chungsilhongsil@gmail.com>
(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 35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6년 10월9일(주일) 낮 1시~5시
10일(월) 저녁 6시~10시 중 택일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 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9월 말씀과 함께 하는 피정

말씀과 함께 하는 피정은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있는 신자분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6년 9월 10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 주제 : 이사야예언서 1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집
- 회비 : \$10(점심포함 - 전날까지 신청)
- 장소 : 남가주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521-1345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본당의 날로 대체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본당의 날로 대체
	3	윤미애 안나 560-7120	본당의 날로 대체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페드로 218-7340	본당의 날로 대체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김다두&아네스 9/10(토)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본당의 날로 대체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본당의 날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본당의 날로 대체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본당의 날로 대체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본당의 날로 대체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9/10(토) 오후 7시 성당2층room #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본당의 날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본당의 날로 대체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9/9(금) 오후 7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본당의 날로 대체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계 단체모임	1시
--------	----

미국이 부러운 이유

다음 달이 미국 대통령 선거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가운데 당선자는 성경에 원손을 얻고 취임선서를 할 것이다. 연설문에는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초청된 성직자들이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소서”라는 취지의 짧은 기도까지 바칠 것이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특정 종교 행사 같은 대통령 취임식이 치워지는 것을 4년마다 부러운 눈으로 지켜봤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미국 헌법에 정해진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 헌법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은 없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이 등장한 것은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취임선서 때부터다. 워싱턴이 독립전쟁 때 비밀 결사조직에서 사용하던 성경을 사용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취임식 때 대통령이 손을 얹는 성경은 워싱턴이 사용했던 독립전쟁 때 것을 주로 쓰고 있다. 다만 가톨릭 신자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가톨릭 교회의 성경을 사용했고, 빌 클린턴은 할머니가 쓰던 성경으로 취임선서를 했다.

이러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도전을 받고 있다. 무신론자인 한 미국 시민은 “현행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역사적 관례인 만큼 없애는 것은 공공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한다.

많은 미국 국민들은 개신교 행사 같은 현행 대통령 취임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 위에 하느님이 제심을 인정하는 것. 헌법 위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 인간이 만든 세속의 법보다 하느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생각, 무한한 하느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런 각오로 정치를 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미국이 부러운 또 하나.

미국 달러화 지폐 뒷면에 인쇄된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글귀다. 이 글귀는 남북전쟁 때 한 농부가 재무성에 청원을 낸 것을 1864년 미국 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1956년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 표어’로 지정되었다.

우리 신자들도 성경 쓰기,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는 여기서 나아가 성경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더해갈 때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신앙인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갑 속에 미국 달러화 한 장을 넣고 다니며 항상 반성한다.

◆ 김상진 요한 / 언론인

[길을 찾는 그대에게]

저는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친절한데, 집에서 자녀나 남편, 부모 등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부들 사이에 서로 온전 연습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온전 연습을 하다보면 결국 싸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남에게 온전 연습을 시킬 때는 오히려 반대로 참을성 있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끼리는 쉽게 자기 동일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일화는 서로 간의 거리를 없애며 서로 존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족들 사이에 분열을 주러 오셨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성급한 동일화에서 벗어나 다시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리감을 회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달라 더욱 멀리하고 경계하려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를, 반대로 가까이 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핏줄은 핏기는 만큼 멀리하고, 남은 멀어지고 싶은 만큼 가까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교리상식]

영성체를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 미사 시작부터 온전히 참례하고 영성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환자, 임종자,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도 영성체 할 수 있으며,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영성체를 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 하도록 권장합니다.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였다면 두 번까지 영성체 할 수 있습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 「미사 전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베드로와 두 기둥을 이루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쓰거나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무려 13권에 이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박해자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모, 끝내 순교자로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오른팔 역할로 그의 편지를 받아쉴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로마서16,21-24

사도 바오로가 대필자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오로는 거의 소경이 될 정도로 심한 안질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아주 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건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갈라디아서 4,13-15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수십 명 인간의 손을 통해 쓰여졌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대필한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필자들의 개성이 반영되었지만 하느님의 영감으로 저술되었습니다. 대필자는 충실하게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원하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티모테오 3,10-17

교회 역사에서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도 바로 성경 필사였습니다. 수도자들은 수십 년 씩, 혹은 평생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사실 많은 수도자와 봉사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노고의 대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에 신비와 기적이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그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테르티우스 같은 이들이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관호 속을 채워보세요!

“이 제자가 이 일들을 ()하고 또 ()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말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들을 다 담아 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 21,24-25)

“사실 ()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을 가려냅니다.” (히브 4,12)

조금씩 조금씩

카프카를 좋아하는 소녀는
독일어를 배우더군요.
보르헤스를 좋아 하던 이는
독서광이 되었고
랭보를 좋아하는 이는 랭보처럼 걸걸 즐기다가
도보여행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자꾸 바라보면 그것과 닮아갑니다.
결국은 생각이 많은 쪽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을 마음에 담아둔 지 오래입니다.

-이영 아네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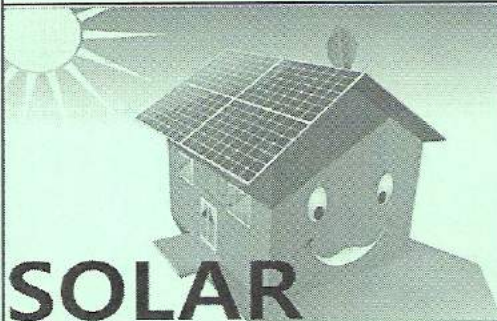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 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용자 / 재용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바-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9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